

제11강 종교 간의 대화 (특강)

(1교시)

신은희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노던대 종교철학부 교수를 거쳐 아이오아 심슨대 종교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평화학 교수로 국제협력처장을 겸임하고 있다.

연세대 국제교류원 초빙교수, 북미종교학회 한국종교위원, 북한의 특강교수로 세계문화를 강의하고 있고 평화통일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평화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주체사상」,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대화」, 「동학과 주체사상과의 대화」, 「북의 인권문제와 통일다원주의」, 역서 『예수의 섹슈얼리티』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종교 다원화 강의

※ 학습목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알아본다.

▲세 가지 종교 모델

-배타주의: 모든 종교의 근본이다. 기관화된 종교에는 근본주의적 성격이 반드시 들어있다.

-포괄주의: 배타주의보다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모델이다. 종교의 가치가 우주적 잣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기도 한다. 타종교를 폄하하는 모델이지만 배타주의보다는 진보된 모델이다.

-다원주의: 나의 특정한 종교경험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종교경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전체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단면적/부분적 진리이다.

▲다원주의 모델

-후기자유모델: 상황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언어적/문화적/차별성적 진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모델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원주민과 같은 부류에게는 힘든 모델이다. 그래서 후기자유모델은 가진 자들의 탐닉이라고 할 수 있다.

-신 중심적 대안모델: 궁극적 실재가 무엇인지 만나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섬겨왔고 발전해 왔나, 그런 기능적 종교모델로서 신 중심적 모델을 얘기한다. 그러나 초월적이란 말은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상당히 다원화 되었지만, 모든 종교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구원 중심적 다원주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냐를 묻는 것이다. 종교의 구속사적인 전통을 통해서 만나보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요구한다. 이 모델의 특징은 text와 context가 전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text와 context가 바뀌면서 해석학적 원운동이 일어난다.

▲포스트모니즘의 흐름

-해체이론: 해체이론은 logos, 관념론적 자아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끝에는 허무주의도 생긴다.

-구조주의: 해체주의의 보안으로 생겨난다. 신 공동체의 출현이다. 과거의 신 중심적 가치가 폐기되고, 진리의 일치 불가치성이 강조되면서 인본주의/자기중심적 주체개념이 열악하게 되어 새로운 자아개념이 등장한다. 공동체 속에서 투영된 자기, 타자를 떠나서 정의될 수 없는 자아, 관계적인 자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질적 자아 개념이다. 즉 내적 연대성의 자아개념이다.

(2교시)

◆종교에 대한 질의와 응답

※학습목표: 질의응답으로 특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북한의 종교 의미는?

-90년대 전까지는 종교가 굉장히 억압당했다. 그러다 90년대 초에 해외 동포들의 통일운동 단체에 의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는 해방신학과 관련된 주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시적인 수준이다.

▲타종교와의 대화 가능성

-구속사는 영혼도 구원한다. 그래도 타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한가?

-각 종교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일종의 배타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는 배타성이라기보다는 고유성이다.

▲기복신앙·제사와 기독교

-기복신앙·제사 같은 전통 문화를 기독교가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은?

-종교와 문화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서양적 사고이다. 제국주의 선교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끝없는 대화다.

▲종교 가치와 다원주의는 대치되지 않나?

-모든 종교가 가치시스템으로 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시스템이 만나서 하나의 유일한 가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가치시스템이 만나고 대화해서, 어떤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과정이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다.

-가치론이 다원주의와 대치되지 않는다. 다원주의는 목적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적용하며 필요하면 변형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다원주의는 이르지 않나?

-한국사회는 외부적 다양성은 없다. 하지만 내면적/정신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의 다양성은 굉장히 깊다.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거부는 한국 기독교인만의 특성이다. 하지만 다른 이의 구원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한다.